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을 따라 해도 괜찮을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5400만명이 보험료 지불능력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이었다 파산하는 국민의 50%가 너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임시방편으로 마트(슈퍼)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SAMHSA(미국 약물남용 정신보건국)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미국 청소년 중 310만명이 일반 의약품, 감기약 등의 약물 오남용으로 환각, 시력 손상, 복통, 폭력성, 정신착란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70만명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고 합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적당히 약을 골라 먹은 결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의 한해 약화사고 약 150만건
약화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35억불 (약 3조 8천억)
한해 약화사고 사망자 7,000여명 (미국 의학연구원 보고서)

이게 의약품을 마트(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는 공연한 우려와 트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곧 닥쳐올 현실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